



[라이프] 광군제 대박 중서 날아오른 K 뷰티 글로벌 위상 '여전' 니



Life

[바이오] 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 문턱 넘었다 EMA 판매 허가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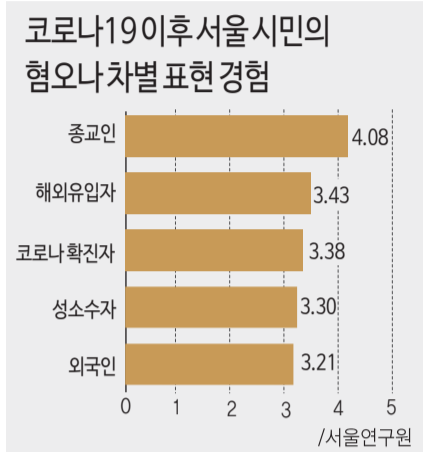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코로나 이후 사회갈등 더 커져”

서울연구원 사회갈등 인식 조사 사회갈등 완화 응답 4% 미만 “사회적 단절 경험하며 불안 증가”

감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한국 사회의 갈등이 누그러졌다고 느끼는 서울 시민이 4%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 역량 배양을 통해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소 완화됐다’는 응답은 2.4%, ‘더 줄어든 것 같다’는 0.8%로, 전체 응답자의 3.2%만이 감염병 사태 이후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비슷



하다’는 14%였다. ‘약간 심해졌다’는 40.5%, ‘훨씬 심해졌다’는 42.3%로, 코로나 이후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응답의 약 26배에 달했다.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내가 가족이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83.6%), ‘내 자신이 감염될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78.1%), ‘나와 친한 사람이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76.4%),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나 경계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72.3%)고 답했다.

감염병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막연한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우울한 상태: 10점, 전혀 우울하지 않았던 상태: 0점)에 6.44점을 쥘 보통 이상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 연구진은 “코로나19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서 나와 내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됐다”면서 “일상생활에서는 감염 불안, 소득·지출 감소, 사회적 관계 단절 같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개인의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시에 사회적 영역 속에서 코

로나19로 가정과 이웃, 직장, 공공장소에서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정부의 방역대응, 정보, 의료체계, 타인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겪으면서 거부감, 혐오, 차별 등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이후 특징인을 향한 혐오나 차별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종교인을 향한 혐오·차별 표현은 5점 척도(5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기준 평균 4.08점으로, 약 80% 이상이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대 (85.1%), 학생 (86.9%), 도심권 (81.8%), 진보적 정치성향(84.5%)의 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해외 유입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 경험은 3.43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20대(60%), 자영업자(58.9%), 서남권(58.6%)에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향한 혐오·차별 경험은 3.38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경험은 주부 (58.5%), 아파트 거주자(54.4%), 보수적 정치성향(57.5%)의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현재 서울의 갈등 관리 시스템은 시와 관련이 있는 공공적 영역의 갈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그런데 공공 갈등은 표출되기 이전에 사회 갈등에서 배태되므로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요 문제와 관련한 정보의 공유에서부터 출발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지원,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원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사업 감사

“사회주택사업 입주물량, 목표 4분의 1 수준”

관련 부서에 행정상 조치 통보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 청년활력공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관련 부서에 행정상 조치 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자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원의 예산을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 연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로 목표(7000호) 대비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보급사업 조사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

도한 지원 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활력공간 점검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한 달간의 재심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달 1일부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역

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에 이른다.

시는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보조하고, 조기 폐차 시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 정액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5일 (월) 음력 :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5 ~ 1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58 | 해짐 / 17:33

연천 0/13, 동두천 1/15, 가평 0/14, 파주 0/14, 서울 5/12, 양평 3/14, 수원 5/14, 용인 5/14, 평택 4/15, 인천 7/13, 백령도 9/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동휠체어 충전기 무료 대여해 드려요”

서울시·서울관광재단

1일 1회, 최대 5시간까지 대여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 이동수단용(전동보장구) 휴대 충전기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주민센터, 관광안내소, 장애인 복지시설 등 서울 전역의 관광지 연계 거점 138곳에 총 476대의 휴대용 충전기

가 비치될 예정이다.

휴대용 충전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대여 가능하다. 신분증을 맡기면 1일 1회, 최대 5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다. 충전기 대여점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COP26 합의안 극적 타결...“석탄, 중단 아닌 단계적 감축” /사진 뉴시스
▲ 中전문가, 바이든·시진핑 첫 화상회담 “양국관계 긍정 신호”

▲ 바이든 정부-일부 주, 부스터샷 대상 확대두고 엇박자
▲ 고삐 풀린 물가에 전세계 신음...서민들 “울고 싶다”



▲ 코로나 재봉쇄 들어간 네델란드, 시행 첫날밤 시위 폭발
▲ 13개국어 더빙의 힘... WSJ, 오겜 ‘글로벌 대박’ 비결로 조명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